

夏夏夏 페스티벌 속으로

공연예술축제 '하·하·하 페스티벌' 17~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발레·클래식의 만남 '동화&전설'·국악퍼포먼스 '썬앤문'
대구 연극 '호아 내새끼'·푸른연극마을 '한여름 밤의 꿈'
실내악 등 소공연·프리 콘서트·아트 프리마켓 등 다채

올여름의 유난스러운 무더위를 씻어줄 공연예술축제가 온다.

광주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인 '하·하·하(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공연장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6개 예술단체가 '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를 주제로 펼친다. 2018상주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상주단체들의 단독 및 합동공연, 외부 특별초청공연, 대구교류공연과 함께 프리 콘서트와 아트 프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1개 무용단과 3개 오케스트라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호흡을 맞춘 상주단체 합동공연 '동화&전설', 국내 뮤지컬감독 1호 박칼린이 연출한 난버릴 국악 퍼포먼스 '썬앤문', 대구 대표 극단 한울림의 스테디셀러 공연 '호아 내새끼'는 시민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공연은 전석초대 및 좌석예약제로 진행된다.

페스티벌의 첫 시작은 17일 오후 7시 야외특별무대에서 대구 극단 한울림의 '호아 내새끼'가 연다. 이 작품은 2010년 첫 창작 공연 이후 9차 앙코르 공연까지 누적 관객 4만5000명을 기록한 대표 공연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26살 청년 호아와 가족의 이야기로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을 다루지만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접근한다. 현실 참여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극단 한울림의 작품 특성을 드러낸다. 문의 062-226-2446.

여름밤에 우리 정서로 다시 만나는 '한여름 밤의 꿈'도 펼쳐진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17일 오후 8시 30분 야외특별무대에서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세익스피어 원작 '한여름밤의 꿈'을 우리 정서에 맞게 번안·각색해 신나는 음악과 춤, 희극연기로 한여름 밤을 장식한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지금-여기서-인간답게!'라는 모토 아래 1993년 창단한 이후 26년 동안 150회의 정기공연과 300여회의 기획공연을 펼친 실력과 공연단체로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를 수상했다. 번안·각색 오성완, 연출 정이형, 작편곡 신태주, 안무 문대근 무대 김명대가 맡았으며 엄준필, 조승희, 안진영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26-2446.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 박칼린이 연출한 난버릴 국악 퍼포먼스 '썬앤문'이 특별초청공연으로 지역 관객들을 만난다. 전통 국악에 일렉트로닉, 록,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홀로그램 영상쇼 등을 결합한 디지털 융복합 공연이다. 서양음악 불레로와 살풀이춤, 서정적인 국악가요, 경쾌한 민요 메들리, 즉석에서 갖가지 재료로 소리를 만드는 폴리 체험 등 화려하고 매력 넘치는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다. 18일 오후 4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문의 062-670-7931.

극단 사람사이는 연극 '우주인'을 선보인다. 낯선 곳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된 세 남자의 이야기다. 대리운전 기사인 소심한 남자(소남)는 손님을 태워다 준 뒤 길을 잃고 헤매다 생수회사 영업사원인 불안한 남자(불남)를 만난다. 그리고 두 남자 앞에 떡북이 노점상인 허약한 남자(허남)가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생기는 일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송정우 대표가 연출을 맡고 이영환, 안윤국, 한중신이 출연한다. 18일 오후 8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무대. 문의 010-

2054-4280.

발레와 클래식의 만남, 4개 단체 콜라보공연 '동화&전설'도 펼쳐진다.

젊은 감각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는 '그린발레단', 2016년 한국문화재단연합회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등 다양한 뮤지션으로 구성된 (사)문화예술진흥회(광주신포니에타), 공연예술과 문화교육 등 일상 속 문화예술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아시아아트신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지휘 박승유, 발레는 김정희, 벨레데 노르보예프 등이 출연한다. 19일 오후 4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8세 이상 관람. 문의 010-9222-7706.

한편 페스티벌 기간 동안 빛고을시민문화관 안팎에서는 공연 전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소공연과 Free Concert, 아트 프리마켓이 진행된다. 본공연 20분 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로비 등에서는 실내악 복관4중주, 시원한 댄스스포츠, 다양한 레퍼토리의 금관5중주, 여름의 서정을 담은 현악4중주 등 소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야외특별무대에서는 겨울왕국, 오페라의 유령 등 유명 뮤지컬의 주요 넘버만 고른 뮤지컬 갈라쇼, 광주 대표 DJ퍼포먼스 팀 빅사이즈루, 국악과 EDM이 어우러지는 사자춤 등 Free Concert가 이어진다. 6개 상주단체의 주요 작품 소개, 문화체험 등 아트 프리마켓과 가법게 즐길 수 있는 무료 음료·간식 나눔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문의 062-670-791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 자생, 자아'

산과 들에 난 길... 인생의 길

고흥 도화현 미술관 이달까지 강복근 전

고흥 도화현 미술관 레지던시 작가 강복근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미술관에서 열린다.

'자연, 자생, 자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자연이 가지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모습으로 풀어낸다.

생태계의 건강함을 작업 안에 끌어들이는 작가는 특히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길'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산과 들에 나 있는 '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속을 걸어간 인간의 흔적이자, 구불구불한 길은 인생의 길이기도 하다.

원시적 생태계에 주목하는 강 작가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태고적 동굴 벽화에서 차용한 스크래치(scratch) 기법으로 작업한다. 밀 작업을 한 후 오랜 시간을 갖고 수없이 반복해서 색을 칠하고 긁어내는 방법이다.

강작가는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고 프랑스 Paul Vale'ry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프랑스, 서울 등에서 12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도화현 스튜디오에 머무르고 있는 강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작업실을 개방하고 도슨트 활동도 하고 있다. 문의 061-832-1333.

/김미은 기자 mekim@

'소년이 온다' '국수' '평양의 시간...'

문 대통령 '북강스 책' 판매 급증

광주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사진) 등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 읽는 것으로 알려진 책 판매량이 대폭 늘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책은 소설 '소년이 온다', '국수', 방북취재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 모두 3종이다.

3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들 도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판매량이 60여 권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읽는 책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동안 4배가 넘는 250권이 판매됐다.

특히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2014년 발표한 '소년이 온다'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책이다.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한 작품이다.

한강 작가는 "제가 작품을 썼다기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과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글을 쓰는 동안 저의 삶을 온전히 그분들께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기자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감문 등을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

'국수'는 소설가 김성동이 지난 1991년 신문 연재를 시작해 27년 만에 지난달 완간한 대하소설로 임오군변(1882)과 갑신병변(1884) 무렵부터 동학 농민혁명(1894) 전야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각 분야 예인과 인걸을 다루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왼쪽부터 '한여름 밤의 꿈', '썬앤문', '호아 내새끼'. <광주문화재단 제공>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